

불교대학을 찾아서

13 불광불교대학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위치한 불광사 불광불교대학(학장 지성)은 1999년에 열반한 광덕 스님이 생전에 주창했던 '불광(佛光)' 운동을 모태로 하고 있다. 즉 부처님의 반야-대지혜 광명으로 우리 자신과 이사회를 비추어 광명화(光明化)하는 운동인 불광 운동이, 대학이라는 결과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불광불교대학은 지난 3월 개교했다. 그러나 신도교육은 1979년 임원을 대상으로 한 기초교리강좌가 효시다. 이후 신도교육은 1986년 포교원을 건축법(등록)하면서 가속도가 붙었다. 중공 기법으로 바라밀 교학강좌가 개설된 신도교육은 '어떠한 차별도 두지 않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배울 수 있도록' 무차법회(無差別會) 형식으로 진행됐다. 불교대학의 전신인 '명교사 교육'은 1987년에 시작, 1,700여명(10기)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불교대학의 교육과정은 4단계로 나뉘어져 있다. 즉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교양강좌(2-3주, 3개월)마다 실시와 불자로서의 신심확립을 위한 불자기본교육(3개월, 6개월)마다 실시, 전법인재양성을 위한 불교대학(1년, 봄·가을), 지도자 양성을 위한 불교대학원(2년, 매년)으로 구분되어 있다.

불교대학에서는 불교교리, 불교역사, 포교방법론, 불교사회복지 등을 배우며 이수자는 일반포교사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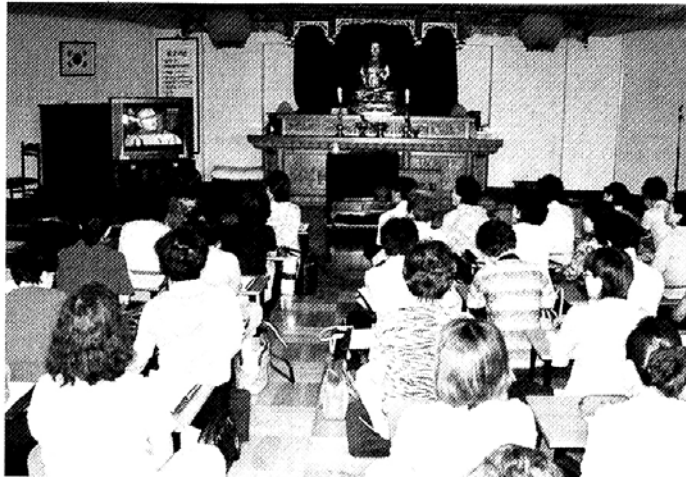
주어진다. 교육생은 출석률 70% 이상, 리포트 제출, 의식실기, 논술 각 70%이상 득점을 해야만 수료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교육일 동안 30분 일찍 출석하여 부처님 전에 촛불을 밝히고, 헌향과 다기물을 올리고, 방석을 정리한다. 이는 교육의 일환으로 강제 조항이 아닌 내부약속으로 시행된다.

특히 올 9월에 설립된 불교대학원 과정은 '실천수행의 바른 길', '현대사회와 불교 역할', '불교지도자 리더십' 등에 대한 깊은 이해와 바른 실천을 겸비하기 위해, 유교경, 금강경 육조, 아보, 종경 삼가선

佛光운동 모태...79년 임원교리강좌가 효시 교양·기본교육·대학·대학원 4개 교육과정 순수불교 추구...佛法 내면화·체계화 역점

해, 유식삼십승, 육조전경 등 불전강독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불광불교대학의 특징은 그 이념적 지향성에 있다. 즉 어떤 사상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강의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광덕 스님의 가르침인 '순수불교'를 추구하며 '반야바라밀 사상'으로 부처님 당시의 깨달음 자체를 중요시한다. 내가 곧 부



▷VTR을 시청하면서 동국대 김영재 교수의 불교미술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들.

처라는 가르침을 신도들에게 내면화시키고 체화시키는데 역점을 두는 것이다. 불광불교대학은 향후 2년제로 학제를 바꿀 예정이다. 또한 불광의 선배 불자들이 구성된 '교육자원봉사단'과 '교육자문교수단'을 강화해 임원교육과 봉사교육을 위한 교육적 뒷받침을 준비하고 있다.

부부가 신행활동 전법포교사 서원

대학원 1기 배광식씨



"부부가 같이 신행활동을 하나 가정의 평화롭습니다."

불교대학 대학원 1기 배광식(75·종본, 사진)씨는 10년 전 명교사원 불교대학 과정을 이수하고, 현재 불교대학 입문과정에서 교학을 담당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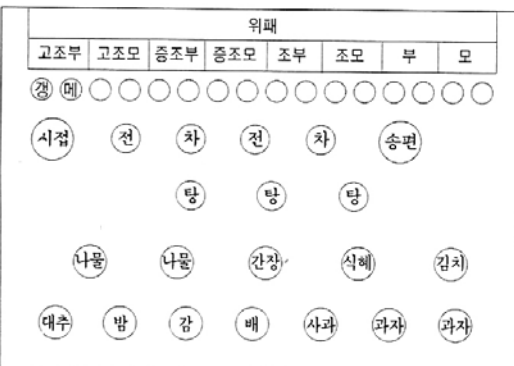
부인 함명희(74·자광수)씨 또한 명교사 교육과정을 마치고 서예사경으로 작품포교 활동을 하는, 부부 신행의 모범을 보여주는 독실한 불자들이다.

배 씨 부부는 "전법포교사로서 왕성한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도심 포교의 1번지이자 신도교육의 선두주자 불광회, 학장 지성 스님은 "이제는 하드웨어적인 부분 보다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충실할 때"라고 지적하고 "지난날의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대학원 과정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02)413-6062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a.com



불교식 제례상 이렇게 자리세요

술·고기류 대신 차·떡·과일로 마련

종도록 진설하면 된다. 차를 올릴 것인가 술을 올릴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 본 가정에서는 가족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차를 올리는 것이 바람직 하고 술을 올리면 전통을 지키려는 이들이 많을 경우 송편 올리는 때에 송편 대신 차를 올려도 좋다. 이는 유교 제사에 '절경봉차(敬奉茶)' 즉 국을 내리고 차를 올린다는 표현이 있는 홀기(飢記)가 발견된 것으로 보아도 맞는 일이다.

상차림은 첫줄에 과일과 과자를, 둘째 줄은 나물류와 식혜, 셋째 줄은 채소, 당류, 넷째 줄은 전과 송편 차(茶), 다섯째 줄은 밥(飯), 갹(羹)등의 순으로 진설하면 된다. 그리고 차례상 좌우에 국화 등 현란하지 않은 꽃으로 장엄하고, 잔을 올릴 때는 녹차로 한다. 위패, 제물 등 모든 준비가 갖추어지면 향을 사르며 무릎을 꿇고 앉아 제례를 시작한다. 불교식 제례의식의 순서를 간략히 하면 다음과 같다. 각 과정에는 계나 염불이 들어간다

△입정(조상을 추모하는 한결같은 마음

을 지낸다 △심념(心念: 부처님 명호를 열 번 염한다 △봉향찬(奉香讚: 향을 사르며 부처님 공덕을 찬탄한다 △정례(頂禮: 조상에게 절을 한다 △독경(讀經)을 열송한다 △헌다(獻茶: 영반의 뚜껑을 열고 술가락을 꿇고 첫 잔을 진수에 올려놓고 난 뒤 제주가 먼저 잔을 올리고 재배하면 차례대로 잔을 올리고 재배한다 △권공(勸供: 조상에 제지를 올린다 △가지(加持: 국을 물리고 송편을 올린 다음 송편에 밥을 세 번 떠서 정성껏 권하여 올리고 진수에 넣어있던 첫잔의 물을 가지런히 맞추어 다른 진수에 옮겨 놓은 뒤 제주 혼자 다시 분향하고 잔을 올리면 모두 재배한다 △축원(祝願)을 받는다 △권공(勸供: 권하여 하직인사를 올린 다음 위패를 태운다 등이다.

김주일 기자

<도움말: 법현 동방불교대 교학부장 스님, 이덕진 한국불교장제문화연구원장>

연중캠페인 - 나눔의 손잡기 운동 '후원합시다'

연립주택 지하단칸방 독거 김용례 할머니

아들 생이별...평생 응어리

젊은이들로 부쩍 대는 서울 돈암동 변화가, 즐겁게 늘어선 옷가게 거리를 등지고 나 있는 뒷골목, 고만고만한 연립주택이 어깨를 마주한다. 그 틈 사이에 자리 잡은 지하단칸방, 일찌감치 패창한 가을하늘과는 비껴서 있었다.

'서울살이' 60년. 흔한 말로 산전수전 다 겪고, 3년 전 이곳에 등지를 틀었다. 서울은 13세에 올라왔다. 삼선고 큰 언니네 집에서 얹혀살다 6.25전쟁 중에 잠시 고향 조지원에 내려갔다. 그리고 23살, 집안의 중매로 결혼해 이듬해 아들을 낳고, 이혼했다.

김용례(72) 할머니. 여태껏 맘 편하게 하늘을 못 쳐다 본다고 한다. গত 달 지난 아들을 빼앗기고 지금까지 한으로 살아

오직 아들을 다시 보겠다는 일념으로 약삭같이 살았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건 그 아이에 대한 미안함 때문이야. 그리움에 사무쳐 평생을 살아왔거든. 한스러울 뿐이야. 참회하고 살았어, 재혼할 기회도 있었지만, 다시 만나게 될 아들 놈 생각에 차마 그럴 수는 없었어."

1997년 IMF. 김 할머니의 인생을 한번 더 헤집어 놓았다. 그럭저럭 운영하던 김 할머니의 아동복공장이 하청업체의 연쇄부도로 문을 닫게 되자, 가재도구며 모든 재산이 압류돼 길거리로 내몰기도 했다. 그때 받은 극도의 스트레스는 김 할머니에게 급성당뇨병과 가난만큼 안겨다 주었다. 금이야 2년

IMF때 운영하던 아동복공장 도산·압류

고령에 질병...어머니영정 의존 어려운 나날



▷카네이션과 어머니의 영정사진. 김용례 할머니가 액자를 세우고 영정을 뒤어내고 있다.

은 인생. '어미의 죄책감'은 평생 풀지 못할 응어리가 되었다.

"대학원을 다녔던 남편은 독선적이었어. 울케도 마친가지고. 집안에서는 이혼을 반대했지만... 결국 갈라서기로 했다. 하지만, 남편이 아들의 양육권을 주장하는 바람에 제대로 저항도 못하고 내주고 말았어."

김 할머니의 전부였던 아들, 보고 싶은 마음에 아들이 다니던 청계초등학교를 매일같이 찾아갔었다. 먼발치에서라도 아들을 보고 외아만 하루를 살 수 있었다. 그러다 몇 년 후 남편의 재혼, 그나마 아들을 볼 수 있는 기회도 없어져 버렸다. 하루하루 지옥 같은 생활. 이제는 살길이 막막해졌다. 미용 일부러 보험회사까지 안 해도 본 것이 없이 다 했다.

전에는 합병증으로 오른쪽 눈에 백내장이 와 큰 수술까지 받았던 데다가 요즘은 왼쪽 눈까지 시력이 현저히 떨어져, 재수술을 해야 할 상황이

다. 하지만 김 할머니는 보충금 200백만원에 사글세 8만 원짜리 지하방에서 버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처지에 수술은 엄두도 못 내고 있다. 끝내 울음을 터트린 김 할머니. 어머니 영정 사진으로 시선이 옮겨진다. 카네이션이 달려 있다. 올 5월 아버지날 인근 복지관 재가복지사에게 받았던 꽃이었다. 정작 아들에게 받고 싶었던 그 꽃을 김 할머니는 어머니에게 드렸다. 아들 때문에 좌절하고 실망할 때마다 큰 기둥이 되어줬던 어머니. 92년 아흔 한 살에 세상을 떠나면서 혼자남은 불쌍한 딸 걱정에 차마 눈을 감지 못했던 어머니였다.

이제는 하얗게 백발이 된 두 모녀. 하얗게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주소: 서울시 성북구 동선동4가 181번지

전화번호: (02)923-2267 후원 계좌: 한빛은행 144-07-096739(예금주 김용례)

김철우 기자

한국산 가시오가피의 대명사

함박재 총 가시오가피

■ 세계 최초 기업농으로 성공시킨 함박재 농장!

함박재농장은 멸종위기에 처해 보호야생식물(자연환경보전법 제2조)로 지정되어 있음 만큼 희귀한 가시오가피 대량재배(10만평, 50만주)에 성공하였습니다.

-KBS, MBC뉴스에 보도 됨-

■ KSA(한국표준협회)로부터 으뜸상품으로 선정!

함박재 가시오가피는 상품력과 기술력, 그리고 QM시스템 구축도 및 활용도를 심사받아 KSA(한국표준협회)로부터 으뜸상품 제 2076호로 선정 되었습니다.

■ 충청남도 "향토지적재산"으로 선정!

함박재 가시오가피는 20여년간 가시오가피 살리기에 노력해 온 점을 인정받아 충청남도 "향토지적재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 제품구입시 가시오가피와 일반오가피를 꼭 확인하세요.
※ 100% 국내산 가시오가피를 "꼭" 확인하세요.

☐ 지금 전화주시면 가시오가피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전화상담 및 구입문의
TEL : (02)2272-4900

(주) 한국자연과학
www.ogapiland.co.kr

종교단체 납골당 운영사업을 사업자와 함께 그일부 또는 전부를 인수할 수 있는 스님을 찾습니다.

1. 장묘 문화의 새바람으로 납골당 건립을 위한 추모공원 조성에 대기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상성생명(8백억원)을 들여 경기도에 40만평을 조성하고 있고, LG는 서울에 15만평을 조성 계획 중입니다.
2. 종교단체 반야암 납골당은 육.공로의 교통이 편리한 김해 "가야랜드 유원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이미 200만평의 전국적인 추모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유원지 내에는 골프장 어린이 놀이터 호수 삼림욕장 운동장등 시설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3. 납골당 규모는 부지 4,440㎡ 지상에 현재 건축된 건물건평은 99.60㎡에 불과하나 앞으로 허용된 건폐율에 의하면 건평1,322㎡를 건축할 수 있고 여기에 유골 1만 위를 봉안할 수 있어 1위당 300만원씩 계산하면 약 300억원의 소득이 된다할 것입니다.
4. 반야암 부지 4,440㎡는 도지시가만 30억원이나 되는 전국적으로 교통이 편리하고 자연환경이 수려한 곳입니다.
5. 그리고 납골당 건물이 사찰 경내지 동편에 별 동으로 건립 되어 있기 때문에 타종교 단체 신도의 납골시설 이용도 무방하다 할 것입니다. 현재 카톨릭 광주교구가 1만 4천위 규모의 납골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 위 종교단체 반야암 납골당 운영사업을 사업자와 함께 그일부 또는 전부를 인수 하고자 하는 스님은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시 삼방동 825-2번지
전화 (055)337-0677 / 011-575-6998
반야암운영회